

네이버웹툰서 슈퍼맨 · BTS 등 슈퍼 IP 오리지널로 만난다

김준구 대표, 온라인 밋업 행사서 글로벌 스토리테크 플랫폼 '네이버웹툰' 성과 · 방향성 발표

네이버웹툰에서 슈퍼맨, 배트맨, 방탄소년단(BTS) 등 슈퍼급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네이버웹툰이 세계 1위 웹툰·웹소설 플랫폼 폭력을 바탕으로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등의 유명 캐릭터를 보유한 미국의 만화 출판사 'DC코믹스'와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은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도 네이버에서만 볼 수 있는 슈퍼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콘텐츠를 확대해 성장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밋업 행사에서 글로벌 스토리테크 플랫폼 '네이버웹툰'의 성과와 방향성을 이같이 발표했다. 웹 오리지널 스토리텔링 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IP 밸류체인을 완성한 네이버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스토리텔링 콘텐츠 생태계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핵심 분야로 확대,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이머시브와 오리지널 콘텐츠 공존...유튜브와 넷플릭스 매력 결미
김준구 대표는 스토리텔링 생태계의 핵심 요소이자 최우선 사항으로 '플랫폼'을 꼽았다. 네이버는 누구나 참여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이머시브 콘텐츠 모델'과 네이버 플랫폼에서 정식 연재되면서 슈퍼 IP로 성장 가능한 '오리지널 콘텐츠 모델'을 모두 구현함으로써, 콘텐츠 플랫폼의 핵심인

콘텐츠와 팬덤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네이버의 콘텐츠 플랫폼은 콘텐츠 창작자가 광고와 인지도를 통해 수익을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글의 '유튜브' 속성과 콘텐츠 결제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넷플릭스'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강력한 플랫폼이라고 분석했다.

▲연간 작가 최대 수익 124억원... 평균 수익 2.8억원

현재 네이버의 글로벌 스토리테크 플랫폼은 1억6700만명의 월간 사용자와 600만명의 창작자가 활동하는 글로벌 1위 플랫폼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고 네이버는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네이버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웹툰 창작자 수익 모델의 표준이 된 PPS(Page Profit Share) 프로그램을 통한 창작자 수익 규모를 공개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PPS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작가 최대 수익은 지난 12개월 기준 약 124억원이다. 전체 대상 작가의 지난 12개월 평균 수익은 약 2억8000만원, 최근 12개월 이내에 네이버 플랫폼에서 연재를 새로 시작한 작가의 연간 환산 수익 평균은 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네이버웹툰의 PPS 프로그램 전체 규모는 지난 1년간 1조7000억여원에 달한다. 네이버가 웹소설-웹툰-영상화로 이어지는 IP 밸류체인을 완성한 만큼 향후 PPS프로그램의 기대 수익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웹소설-웹툰-영상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IP 밸류체인 구축

네이버가 글로벌 규모로 구축해온 IP 밸류체인과 이를 통한 선순환 효과도 소개했다. 네이버의 IP 밸류체인을 통해 하나의 IP가 웹소설, 웹툰,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돼 전세계 팬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네이버의 스토리테크 플랫폼은 다양한 언어권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어, 하나의 IP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중 하나가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면 이 팬들이 다른 콘텐츠로도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하이브, DC코믹스 등 슈퍼 IP 기업과 협력

글로벌 팬덤을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외부의 슈퍼 IP를 웹툰이나 웹소설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하는 '슈퍼 캐스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슈퍼 캐스팅의 첫 번째 협업 파트너는 '하이브'와 슈퍼맨, DC코믹스다.

네이버웹툰은 향후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하이브 산하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한 오리지널 스토리 웹툰이나 웹소설을 만들거나, DC코믹스의 세계관이나 캐릭터를 활용한 오리지널 웹툰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순히 슈퍼 IP를 변환시켜 네이버 플랫폼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완전한 오리지널 웹툰·웹소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가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밋업 행사에서 글로벌 스토리테크 플랫폼 '네이버웹툰'의 성과와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네이버웹툰 제공)

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등 디즈니의 마블 등 세계적인 슈퍼 IP들과의 협업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었다.

▲일본 웹툰 1위 왕좌 카카오로부터 탈환 의지 피력

후발주인 카카오의 웹툰 플랫폼 '픽코마'가 일본에서의 1위 자리를 차지한 데 대해서는 탈환 의지를 다졌다.

김 대표는 "선주주자(라인망가)의 일본에서의 공회전이 후발사인 경쟁사(픽코마)에 좋은 기회가 됐다"며 "지난달 말에 라인망가 2.0을 일본에서 출시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전했다.

네이버 스토리텔링 플랫폼이 세계 1위로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압도적인 사용자 규모"를 꼽으며 "이러한 사용자 규모는 단기간에 얻을 수 없으며, 플랫폼의 진짜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웹툰이라는 단어를 세계 최초로 만들고 세계 1위의 스토리텔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변곡점으로는 ▲인기 웹툰·웹소설이 팬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PPS로 수익 구조와 구축 ▲모바일 시대에 따른 접점 확대 ▲2014년 글로벌로 선도적으로 진출해 규모의 경제 확보 등 3가지로 김 대표는 분석했다.

▲모바일 시대에 따른 접점 확대 ▲2014년 글로벌로 선도적으로 진출해 규모의 경제 확보 등 3가지로 김 대표는 분석했다. /뉴스

팔복예술공장 입주작가 기획전 '아, 당신이었군요'

전주문화재단, 창작스튜디오 4기 입주작가 7인 기획전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팔복예술공장에서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팔복예술공장 A동 전시실과 B동 이팝나무 홀에서 창작스튜디오 4기 입주작가 7인의 기획전시를 연다.

이번 '팔복예술공장 2021 FoCA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기획전 '아, 당신이었군요.'는 프랑스의 작가 파스칼 키냐르의 소설 '심연들'의 한 구절을 인용하였다. 전시 제목 속 '당신'은 잊힌 시간, 사람, 환경, 기억 등을 연상하게 하며, 관객을 전시공간에서의 관람에서 멈추지 않고 개개인의 사유로 확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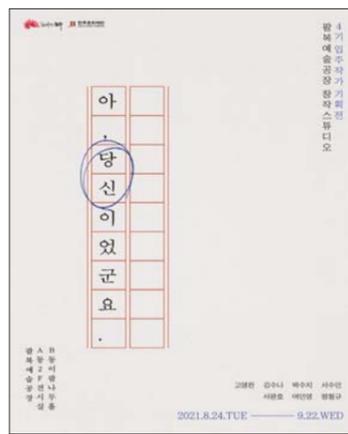
팔복예술공장 4기 입주작가 곽영찬, 김수나, 박수지, 서수인, 서원호, 여인영, 정철규 작가는 전시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공간',

'창작', '연계' 등을 상상력과 함께 현재의 실험 전시의 형식으로 풀어내어 작가들의 예술적 상상력과 실험적 태도를 면밀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전주문화재단 백옥기 주임은 "이번 실험적 전시를 통해 창작스튜디오 사업 목적을 이해하고 예술인 창작자와 지역 네트워크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의 관람료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방문으로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팔복예술공장 창작기획팀(063-212-8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흥부제 시민 아이디어 공모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위원장 이봉식)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사랑의 광장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9회 흥부제를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내용은 제29회 흥부제 반영할 수 있는 흥부 및 흥부제와 관련이 있으면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또는 프로그램)로, 남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모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신청은 이메일(bnt0810@korea.kr) 및 우편접수(남원시 양림길 43, 춘향문화예술회관 1층 별관 흥부제전위원회)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는 흥부제전위원회 홈페이지 및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이용하면 된다.

신청된 아이디어는 적합성, 창의성, 연계성, 실현성 등을 종합평가해 심사할 계획으로, 9월 10일 흥부제전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



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제29회 흥부제에 반영할 계획이며, 선정된 시민들에게는 남원시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